

한국어의 운율구조와 통사-의미구조와의 관계¹⁾

이 호 영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요약

문장을 이루는 문장 구성성분 사이에는 다른 정도의 운율적 친밀성 (운율적 구성성분 관계)와 상대적이며 계층적인 운율적 강도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장의 운율구조를 세울 수 있으며, 운율구조는 나무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운율구조는 대응하는 통사구조가 보여주는 통사적 구성성분 관계 (constituency)와 계층적 지배관계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지만, 문장의 운율구조는 먼저 구단위로 운율구조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각 구들의 운율구조를 연결하여 완성해야 하며, 통사구조가 같은 구 (phrase)도 구성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운율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문장의 일부만이 초점을 받으면, 초점받은 부분이 가장 강한 운율강도를 갖게되어 전체초점을 받을 때의 운율적 구성성분 관계와 계층적인 운율적 강도관계가 변할 수 있다.

1. 운율구조 설정의 필요성

운율구조를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아주 예쁜 책

위의 명사구가 전체초점 (broad focus)을 받고, 신중하고 느리게 발음되면, 각 낱말이 독립된 말토막 (rhythm unit)²⁾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자연스럽게 발음되면, '예쁜'과 '책'이 '아주'와 '예쁜'보다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아주'와 '예쁜'이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되고, '책'이 독립된 말토

주1)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논문인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의 제2 장의 내용을 간추리고 필요한 내용은 덧붙여서 쓴 것이다

주2) 말토막이란 하나의 악센트를 받는 음절과 악센트를 받지 않는 음절(들)로 구성되며 이 음절들은 하나의 긴밀한 발음 단위를 이룬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현복(1974, 1982)와 H.Y. Lee (1990)를 참고할 것.

막으로 발음되면 '책'이 부분초점 (narrow focus)를 받은 것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쁜'과 '책'이 '아주'와 '예쁜'보다 운율적으로 더 친밀하며, 더 높은 운율적 층위에서 하나의 구성성분 (constituent)을 이룬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운율적 관계를 나타내 (represent)기 위해 우리는 변형생성문법과, 시운율음운론 (metrical phonology)을 비롯한 복선음운론 (non-linear phonology)에서와 같이 운율적 관계들이 계층적 구조 (hierarchical structure)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며, 운율적 관계의 계층적 구조는 나무그림 (tree diagram)을 이용해 나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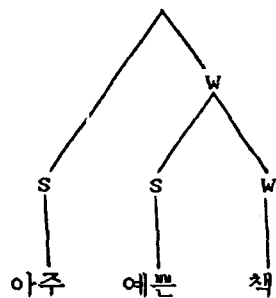
이상의 관찰과 가정을 토대로 (1)의 명사구의 잠정적인 운율구조를 세워 보면 다음과 같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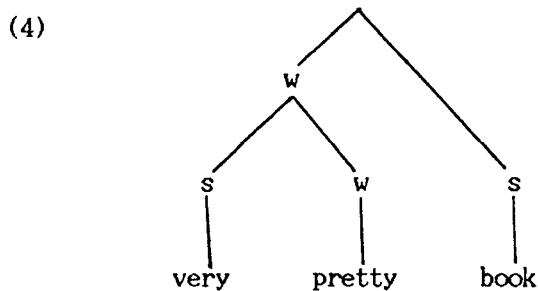
위에서 (1)의 명사구가 전체초점을 받고, 신중하고 느리게 발음되면 각 낱말이 독립된 말토막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는 곧 각 낱말이 악센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그리고 이 명사구가 빠르고 자연스럽게 발음되면 '아주'와 '예쁜'이 악센트를 받으며, '책'은 악센트를 받지 못한 채, 악음절로서 '예쁜'과 함께 하나의 말토막을 이룬다. '책'이 '예쁜'보다 더 강한 악센트를 받으면 '책'이 부분초점을 받은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우리는 '예쁜'이 '책'보다 운율적으로 더 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일 이 명사구가 더 빨리 발음되면 하나의 말토막으로만 발음되어 '아주'만이 악센트를 받고, '예쁜'과 '책'이 악센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가 '예쁜'과 '책'보다 운율적으로 더 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운율적 강약관계를 's(trong)'와 'w(eak)'를 써서 나타내면, (2)의 잠정적 운율구조는 다음과 같은 운율구조로 완성될 수 있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을 이루는 형태소 (혹은 낱말이나 어절)들 사이에는 다른 정도의 운율적 친밀성 (prosodic intimacy)과 악센트 수용가능성 (accentability)이 존재하고, 이러한 운율적 관계들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계층적 구조는 나무그림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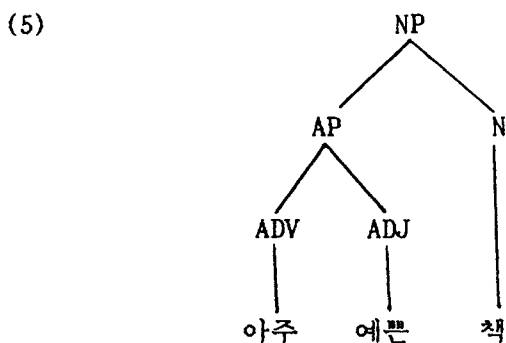
위에서 설정한 ‘아주 예쁜 책’의 운율구조와 이 명사구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영어의 명사구인 ‘(a) very pretty book’의 운율구조를 비교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 ‘pretty’는 보통 앞에 나오는 ‘very’와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되며, ‘book’이 가장 강한 운율강도를 갖는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의 운율구조는 각 접점 (node)이 대체로 양분되는 (binary branching) 공통점을 가지나, 영어는 보통 가장 오른쪽에 오는 낱말이 가장 강한 운율강도를 갖는데 (right-headed) 반해, 한국어에서는 가장 왼쪽에 오는 낱말이 가장 강한 운율강도를 갖는 (left-headed) 차이점이 있다.

2. 운율구조와 통사구조와의 관계

앞에서 우리는 ‘아주 예쁜 책’이라는 명사구에 운율구조를 부여하였다. (3)에 있는 이 명사구의 운율구조와 이에 대응하는 통사구조를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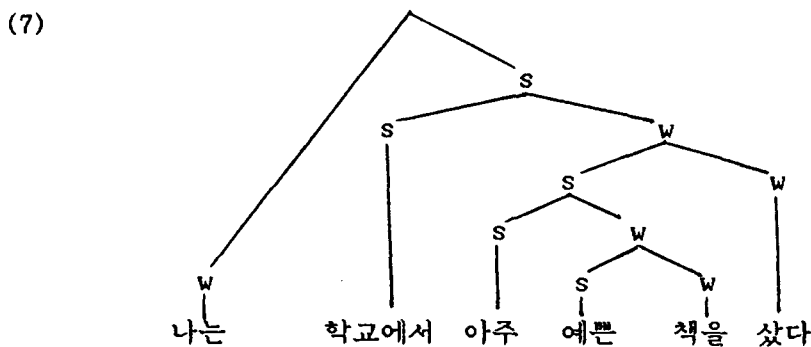


우리는 여기서 운율구조와 통사구조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운율적으로는 ‘예쁜’과 ‘책’이 ‘아주’와 ‘예쁜’보다 더 가깝지만, 통사적으로는 ‘아주’와 ‘예쁜’이 ‘예쁜’과 ‘책’보다 더 가깝다. 뿐만 아니라 통사적으로 ‘책’이 이 명사구의 머리(head)이므로 통사적으로 가장 강하지만 운율적으로는 가장 약하고, ‘예쁜’이 명사구에 종속되어 있는 형용사구의 머리이므로 ‘아주’보다 통사적으로 더 강하지만 운율적으로는 더 약하다.

이와 같이 운율구조와 통사구조는 모두 구성성분 사이에 존재하는 운율적, 통사적 친밀도와 계층적인 강도(지배관계)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율구조가 나타내는 운율적 친밀성과 계층적인 운율강도는 통사구조가 나타내는 통사적 친밀성(constituency)과 계층적인 지배관계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운율구조와 통사구조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구(phrase)는 둘 이상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다른 구의 일부와 하나의 직접 운율 구성성분(immediate prosodic constituent)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나는 책방에서 아주 예쁜 책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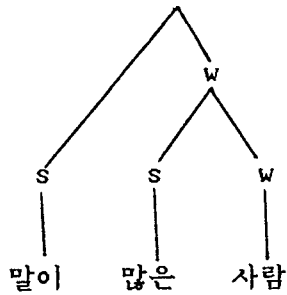
위의 예문을 발화할 때, ‘책방에서’와 ‘아주’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하면 이상하게 들리고, ‘책을’과 ‘샀다’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하면 ‘책을 샀다’가 부분초점을 받은 것처럼 들린다. 따라서 우리는 운율구조를 일차적으로는 각 구별로 부과하고, 다음 단계에서 구단위로 부과된 운율구조들을 운율적 친밀성과 강도에 따라 묶어서 전체 운율구조를 세운다. 필자는 H.Y. Lee (1990)에서 각 구별로 운율구조를 부과하는 운율규칙들과 구단위로 부과된 운율구조들을 묶는 운율규칙들을 세웠는데, 이 규칙들을 적용해서 위의 예문에 운율구조를 부과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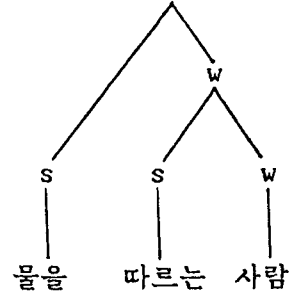
3. 운율구조와 의미구조와의 관계

세계의 어절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명사구는 (3)과 같은 운율구조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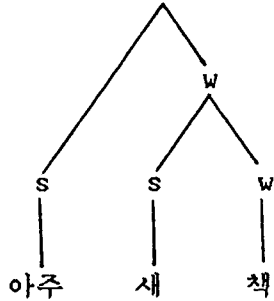
(8)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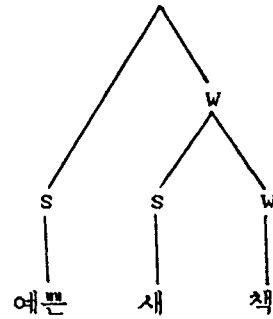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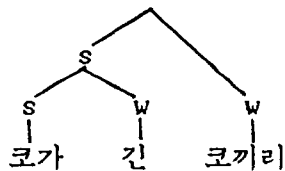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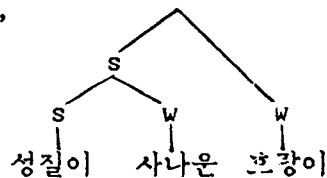


위의 예들에서 (a)는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종속절을, (b)는 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종속절을, (c)는 (d)는 각각 부사-관형사, 형용사-관형사로 이루어진 수식어를 가지고 있으나 모두 같은 운율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명사구들은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종속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운율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다.

(9)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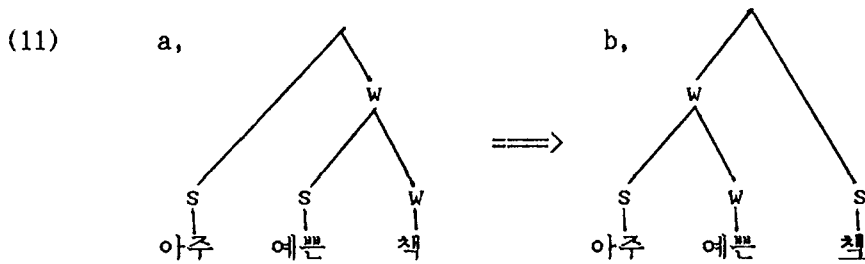


위의 운율구조는 '코가'와 '긴', 그리고 '성질이'와 '사나운'이 '긴'과 '코끼리', '사나운'과 '호랑이'보다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4. 운율구조와 부분초점 (narrow focus)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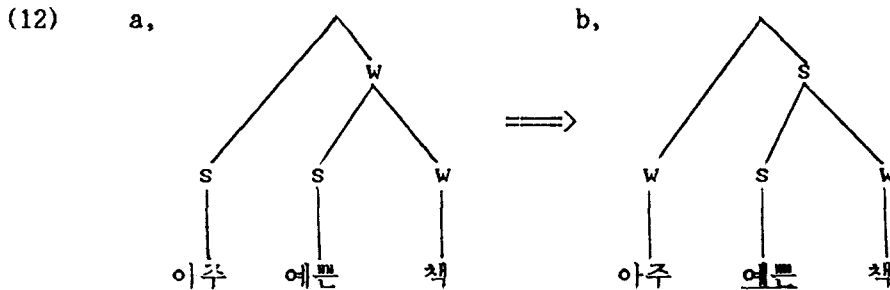
이상에서 우리는 명사구를 중심으로 이들이 전체초점 (broad focus)을 받을 때 어떤 운율구조를 갖는가를 논의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운율구조들은 명사구 (이보다 더 큰 단위일 때도 마찬가지임)가 부분초점을 받았을 때에 생기는 운율적 친밀성과 강도의 변화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의 명사구를 예로 부분초점과 운율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 명사구에서 '책'만이 새정보 (new information)라서 부분초점을 받으면, 부분초점을 받는 부분이 운율적으로 가장 강하게 되므로 (3)에 설정된 운율구조의 운율적 강도의 관계들이 변화하며, 운율적 구성성분관계도 변하게 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이 부분초점을 받기 때문에 가장 강한 운율적 강도를 갖게 되어 독립된 말토막으로 발음되므로, '아주'와 '예쁜'이 하나의 구성성분이 되며 '책'보다 약한 운율적 강도를 갖는다.

이 명사구에서 '예쁜'만이 부분초점을 받으면, (11a)와 같은 운율적 구성성분관계는 유지하나 '예쁜'과 '책'을 지배하는 접점 (node)이 '아주'를 지배하는 접점보다 더 강한 운율적 강도를 갖게 된다.



이 명사구에서 '아주'만이 부분초점을 받으면, 이 명사구는 하나의 말토막으로만 발음되며, '아주'만이 악센트를 받는다. 이 때에는 이 명사구가 전체초점을 받고, 빠르고 자연

스럽게 발화될 때와 비슷하게 발음되지만, '아주'는 부분초점을 받을 때 대체로 더 강하고, 길고, 높게 발음된다.

이 명사구에서 '예쁜 책'이 부분초점을 받으면, 이 명사구는 (12b)와 같은 운율적 강도 관계와 운율적 구성성분관계를 가지나, 신중하고 느린 말씨에서 '예쁜'과 '책'이 모두 악센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쁜'만이 부분초점을 받았을 때와 다른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명사구의 '아주 예쁜'만이 부분초점을 받으면, 이 명사구는 전체초점을 받을 때와 같은 운율구조를 갖는데, 보통 '아주'와 '예쁜'이 모두 악센트를 받으며, 전체초점을 받고 신중하고 느리게 발화할 때보다 대체로 더 강하고, 길고, 높게 발음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문장을 이루는 문장 구성성분 사이에는 다른 정도의 운율적 친밀성(운율적 구성성분 관계)과 상대적이며 계층적인 운율적 강도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장의 운율구조를 세울 수 있으며, 운율구조는 나무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보았다. 우리는 또한 운율구조가 통사구조에서 보여주는 통사적 구성성분 관계(constituency)와 계층적 지배관계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지만, 문장에 운율구조를 부여할 때는 먼저 구단위로 운율구조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각 구들의 운율구조를 연결하여 문장의 운율구조를 완성해야 함을 보았으며, 통사구조가 같은 구(phrase)도 구성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운율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보았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일부만이 초점을 받으면(부분초점을 받으면), 초점받은 부분이 가장 강한 운율강도를 갖게되어 전체초점을 받을 때의 운율적 구성성분 관계와 계층적인 운율적 강도관계가 변할 수 있음도 논의했다.

이 논문이 그 동안 부진했던 한국어의 리듬연구와, 리듬과 통사론과 의미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글에서 말로(Text to Speech)의 음성합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이현복(1974) "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pp15-25.
2. 이현복(1982)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4. pp31-48.
3. Lee, H.Y.(1990)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